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6 학번 김채현입니다. 현재는 삼성전기에 입사하여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외활동, 공모전,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순 없겠지만 취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대학생활 (스펙, 학점, 발표)

**스펙** (대외활동, 인턴, 현장실습..)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대외활동, 인턴경험 등 스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취업한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을 보며 '나는 도대체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학 때 현장실습을 지원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펙을 쌓지 않으셨다면 이미 하지 않았던 "스펙쌓기" 에 대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쌓기에 급급해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정작 지원하는 회사와 업무에 벗어나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취업준비하면서 만났던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합격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스펙을 쌓아봤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스펙이 없다고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점**

위에 말씀드린 스펙과 마찬가지로 학점이 높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은 학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이 학부시절에 열심히, 성실히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은 면접관이 학점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며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점이 높다면 칭찬해 주시고 농담도 하시면서 분위기 좋게 면접을 끝냈다는 주변 친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면접관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학점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가 더 남으셨다면 학점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의 경우는 면접관께서 지원자가 수강한 전체 과목과 각 학점을 보실 수 있으시니 성적 받기 쉬운 과목이나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 없는 과목만 들으며 성적을 잘 받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발표**

대학생활 중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경험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지만 대학생활 내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통해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면접 때도 발표했던 경험들로 자신을 더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발표를 지원해서 하지도 않았고 잘 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연수생활 중 발표를 잘 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스스로에게도 큰 발전이 될 거라는 회사 동기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대학생활 동안 발표를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당장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선뜻 나설 자신은 없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 2. 채용절차

채용절차는 지원하시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준비했던 삼성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 요건인 어학은 토익스피킹과 오픽 중 따면 되지만 저는 둘 중 비교적 단기간에 딸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을 땀습니다.)

### <자기소개서>

활동들을 많이 안한 탓인지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없고 삼성전기가 저의 첫 자기소개서라 막막하였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1 학년 때부터 해왔던 경험들을 무작정 적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여행, 교환학생, 설계과제 등..) 내가 했던 것들을 적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에게 의미 있었던 일들을 자기소개서에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막막하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앞서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굉장히 못 씁니다. 글쓰기엔 소질이 없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성하는 데만 두달넘게 걸린 것 같아요. 혼자 오랫동안 써본 후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어울림)을 받으며 끊임없이 수정했습니다. 또한 글쓰기에 소질 있는 문과 친구들한테도 첨삭을 받으며 고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쓸 때는 잘못 흘러간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적성 (gsat)>

인적성은 개인마다 공부한 양과 기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은 정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 주 정도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유튜브에 gsat ~영역이라고 치시면 도움 되는 영상 많이 나와요) 시험 때 문제 푸는 양보다는 정답률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서 저도 실제 시험장에선 다 풀어야지라는 생각보단 정확히 풀어서 정답률 높이는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면접>

저는 사실 면접을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아서 **gsat** 합격 발표 후 바로 일주일 뒤 면접이 있던 통보를 받고 막막함 속에 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장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하진 못했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밤잠 설쳐가며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 공부하기 (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 ): 지원한 회사가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 주력 제품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사업부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싶은지를 정리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인재상, 핵심가치를 알고 나의 어떤 면이 핵심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시절 경험했던 팀 과제들 정리하기 : 팀 활동하며 만들었던 ppt 나 자료 등을 다 프린트하여 이게 어떤 과제였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 어떤 것들을 활용했고, 과제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었고, 과제를 통해 배운점이 무엇있는지 썩 다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에서 자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 정리하기 : 내가 제출한 자소서를 기반으로 어떠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하고 답변을 생각했습니다. 자소서 기반 아니더라도 면접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미리 대비 못할만한 질문들도 면접 때 받았지만 준비했었던 전형적인 면접 예상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면접 스터디 하기 : 급하게 면접 준비를 하느라 스터디를 찾는것도 힘들었습니다. 경북대 근처에 스터디가 있어서 이동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저에게는 기대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면접 스터디할 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긴장감도 조금은 줄어들었고 제 답변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의 스터디로 두 번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 3. 기타 전하고 싶은 말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신소재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에 참가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휴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휴학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흘러가는 대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성 입사 후 동기들을 만나며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자기계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대충이 아닌 몰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더라도 몰입을 하였던 사람은 의미를 하나라도 더 부여하며 스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몰입을 해보며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준비든 다른 일을 할 때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몰입을 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과정 속에서 얻는 의미들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큰 목표도 없던 저에게 대기업에 지원해보라며 격려해 주신 교수님, 많은 조언과 끊임없이 응원을 해 준 주변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kchyun23@gmail.com](mailto:kchyun23@gmail.com)